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4년 표어 §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막10:45)

† 행동 지침 †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말씀의 씨와 마음밭들

(마 13:1-23)

The Seeds of a Word and the Fields of a Mind

(Matt 13:1-23)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주시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십니다. 귀는 분명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요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네 종류의 사람들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1. 길가와 같은 마음 밭

길가는 밭 사이에 나 있는 통로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녀서 단단하고 굳어져 있어 이 곳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내릴 겨를도 없이 새들이 날아와서 주워 먹어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길가와 같은 마음 밭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긴 들지만 아무런 깨달음이 없고, 깨달음이 없으니까 은혜를 받을 리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자기 자신의 철학과 지식과 경험들이 꽂 차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지자마자 악한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즉시로 빼앗아 가 버리게 됩니다.

2. 돌밭 같은 마음 밭

흙층이 얇고 그 아래 돌들이 깔려 있는 돌밭에는 뿌러진 씨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밭의 적이 악한 사탄이었다면, 돌밭 같은 마음 밭의 적은 우리의 육신입니다. 육신은 언제나 편한 것을 도모하기 때문에 더 편한 것, 더 축복된 것, 더 형통한 것만 찾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는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자신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이런 크리스천들이 많아질 때 성경의 진리, 십자가의 복음, 기독교의 진정한 모습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입니다. 있다는 것입니다.

3. 가시떨기 같은 마음 밭

가시떨기 밭과 같은 마음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여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요1 2:16).

4. 좋은 땅 같은 마음 밭

마태는 좋은 땅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눅 8:15)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땅과 같은 마음 밭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되 인내함으로 끝까지 지키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되 인내함으로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되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고 여러분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시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Jesus said, "He who has ears, let him hear" in parables. Our ears are really a gift that was given by God, the fact that someone can receive God's word is a personal choice and responsibility.

Being told by God's word, everyone reacts differently. There were four different kinds of people appear in the text.

1. The field of mind like a road

Because the road between fields on which people passed became hard and stiff, birds could fly and eat the seed that was sowed on this road, having no time to put down roots. In other words, though those who have a mind like the road heard God's word, they realize nothing. Without realizing anything, it is not possible for them to receive grace.

As their mind is filled with their own philosophy, knowledge, and experiences, many people cannot receive God's word. Upon sowing the seed of God's word in such people's mind, the evil Satan comes right away and extorts it from them.

2. The field of mind like stones

The seed that sowed in a stone field under the thin and rocky soil cannot put down its root. If the enemy is the evil Satan, the enemy is like stones in the story. Our body can't digest stones. The stones are people who consider themselves to be more convenient, more blessed, and luckier. Such people are never interested in the truth. Only they are interested in advantages that are beneficial for them. If such Christians become more and more, the truth of the Bible, the Gospel of cross, the real aspect of Christianity will perish.

3. The field of mind like thor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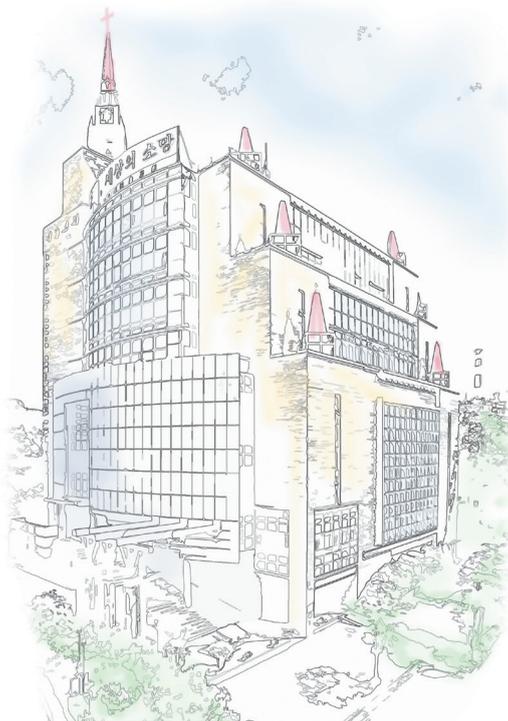
Those who have the field of mind like thorns can easily receive God's word. But it is possible for them to fall into temptation of worldly worry and wealth very much. The craving of sinful man, the lust of his eyes, and the boasting of what he has, prevent our faith from growing and bearing good fruit (1 John 2:16).

4. The field of mind like good soil

Matthew says, "a good soil is the person who hears God's word and realizes," while, Luke concretely says, "those who hear the word, retain it, and by persevering produce a crop" (Luke 8:15). Therefore, the field of mind is like good soil like those who hear God's word, realize, obey, and, by persevering, retain it to the end.

My beloved Christians,

By receiving God's word and obeying it, and persevering, you become a person who retains it to the end. According to almighty God's word working in your life, you should change your life. By giving a holy influence to those who are connected with you, I earnestly hope that you will be a wonderful and faithful people



제10회 한마음 한가족 축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자!"

5월 6일(화) 오전 9시 30분, 잠실학생체육관

제10회 한마음 한가족 축제가 5월 6일(화)에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열린다.

한마음 한가족 축제를 통해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가족 공동체임을 경험하고, 평소에는 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 교구가 하나 되

고 온 교회가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며, 하나 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한다.

준비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선물과 증정품을 마련할 예정이므로 모든 성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란다.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조 직

- 대 회 장 : 박노철 목사 / - 지 도 : 유문건 목사
- 준비위원장, 기획진행본부 : 조정식 장로 / - 청팀단장 : 서문석 장로, - 백팀 단장 : 박정선 장로
- 재정기록본부 : 이강진 장로 / - 지원관리본부 : 최광성 장로

■ 팀 구 성

- 청팀: 3, 8, 9, 10, 12, 13, 14교구 성도 및 교구목사, 예배다부
- 백팀: 1, 2, 4, 5, 6, 7, 11, 15, 16교구 성도 및 교구목사, 디아스포라부
- 호산나대학



잠실학생체육관 지도와 실내도면

■ 교 통 편

- 버 스 : 301, 360, 362, 600, 730, 3217, 3218, 3411, 3412, 3414, 3415, 3417, 3422
- 지하철 : 2호선 종합운동장역 8번 출구
- 주 차 : 수용대수 90대, 주차 - 10분당 300원, 일일최대 16,200원, (체육행사 시 50%감면)

2014년 행사 조직표

홍 해 작 전		바 자		사 명 자 대 회	
6.6(금)~6.25(수)		9.25(목)~9.26(금)		10.5(주)~11.23(주)	
부 장	이영기	부 장	서문석	부 장	박두호
차 장	최규조	차 장	김광태	차 장	송인수, 김상태
기 획	이준호 교회학교 부장	기 획	주동재 최인수, 김광민	진 행	신봉하
예 배	김광욱 예배위원회 예배위원	재 정	김재중 김형상, 김영희, 안분선, 정경자, 이경란	홍 보	김수원
동 원	오유식 교구위원회 부교구장 교구간사	판매관리	예완식 임광우, 김상태, 장덕, 문한식	전 도	이민호
홍 보	정치은 순례자	섭 외	이강인 김장섭, 송용훈, 박광식	기 도	박종권
봉 사	고정숙 제2권사회, 여전도회 피택권사	홍 보	서춘식 박희서, 정치은	교 육	박광식
차 량	최차순 피택장로 스데반회 피택집사	시설관리	홍일성 이길재, 고석태, 오교식, 유기찬, 이상호, 신항범	안 내	송용훈
		교회학교	이준호 이민호, 오윤걸, 강성은	재 정	노창훈
		특 판	진교인 안준홍, 박조현, 정진문 최관목	봉 사	제1권사회 김일순 피택권사
		식당관리	차도훈 양인수, 장창수	차 량	차량부 최차순 피택집사
차 량	최차순, 박종구, 이종창, 진승근, 유윤상, 김규환, 윤명구, 김혜수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125)

(문 125) 에스라2장과 느헤미야7장의 통계의 차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답) 에스라2:3-35과 느헤미야7:8-38에는 바로스 자손 2,172명을 시작으로 33가족 단위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중 14가족의 수가 서로 차이가 있으며 2가족 즉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에스라), 667명(느헤미야)으로 한 사람의 차이가 있고 베새 자손이 323명(에스라), 324명(에스라) 역시 한 사람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엔 100명 이상의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아스갓 자손이 1,222명과 2,322명으로 각각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숫자적 차이는 각 가족이 집합지에 모이는 동안 어떤이는 죽기도 하고 어떤 이는 병으로 계수에 빠지는 경우도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의 기록 환경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느헤미야는 유다에서 예루살렘성벽을 수축한 후에 계수된 것입니다. 이처럼 시간적 차이는 수의 증감에 영향을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주전 445에 이 기록을 할 때 그의 목적은 537(또는536)년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리더십 하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실제적 인구수를 말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450년에 그 백성의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백성 중에는 바벨론 시절을 그리워하고 백성의 수에서 빠져나간 이도 있었고 또는 바벨론에 잔류기로 했던 이들 중 다시 늦게 따라온 이들도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가능성은 필사본을 만들 때 생길 수 있는 오류를 간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의 숫자는 작은 점과 깃의 모양에 따라 수가 달라지므로 필사 시 수의 차이는 자연스러울 만큼 자주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숫자의 차이는 성경의 오류가 아니라 오히려 성경의 정확성을 보여준 실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주 계속)

시온찬양대 수련회

장소 : 강화도 강화교회
2014년 4월12일(토) 오전 8시 출발
장사 : 박영준 목사, 박정선 장로, 이강진 장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다음은 지난 3월 28일(금) CBS 기독교 시사프로그램 '크리스천 NOW'에 패널로 참석한 이종운 원로 목사님의 북한인권법 제정에 관한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주)



**"인권은 국권인 동시에 신권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은
'북한 인권법'을 통해
하루 빨리 회복 되어야 할 것이다"**

법을 주시고 후에 은혜를 주셨다. 따라서 북한에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게 하는 인권법은 시급한 문제이다. 북한은 하루 빨리 종교의 자유와 정의가 회복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정의란 약자를 돌보는 것이다"라고 하며 이어 "그러나 북한인권법은 무엇보다 북한 주민을 위한 법이 되어야 하며 북한 주민의 호감을 얻을 수 있는 법이어야지 대북 정책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 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당장 합리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제도적 조건은 개선될 것이다"라고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도 만난 사람을 본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를 아는 척 하면 머리 아픈 일이 생길까 하여 그를 비켜 갔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조롱하는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가슴이 아파 기꺼이 그를 돌보았다.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면 북한의 고통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지난 3월 18일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의 인권 실태를 분석한 최종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조사는 1년간 탈북자 80여명을 대상으로 공개 청문회를 열고 증언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이번 보고가 국제 사회에 공개되면서 북한인권법 제정이 또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북한인권법 제정은 교계 내에서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북한인권법 제정에 관해 성경에 근거한 올바른 시각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에 이종운 원로 목사님은 지난 3월28일(금) CBS TV 시사프로그램에 패널로 참석해 북한인권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인권은 국권인 동시에 신권이므로 북한 주민의 인권은 북한인권법을 통해 하루 빨리 회복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날 함께 패널로 참석한 서보혁 교수(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는 북한인권법에 순수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어 북한과 감정적 교류를 거치며 내부적인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이종운 원로 목사님은 "북한 주민은 지금 이 시간에도 식량권과 생명권 등의 인권을 철저히 유린 당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은 개인의 사치를 위해 1년에 6억 달러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 북한과 감정적 교류가 가능

한가"를 물었다.

미국과 일본은 각각 2004년과 2006년에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여 탈북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난민 지위 확보하고 탈북자 납치등의 문제에 관해 북한 정권을 압박하는 등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우리나라는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해 여야가 찬반 양론을 벌이며 대립만 하고 있으니 이는 하나님 앞에서 매우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 북한인권한국교회연합 대표이신 이종운 원로 목사님은 이 날 대답에서 창세기 14장을 근거로 "인권은 국권을 포기한 것이고, 인권은 평화보다 중요하다. 의가 없는 평화는 거짓 평화. 하나님도 울

정리 허숙 권사 (편집부)



조정식 장로 (준비위원장)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계절 앞에, 이 모든 좋은 것들과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와 사랑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서울 교회는 오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지난 2009년 이후로 잠시 중단되었던, 전교인 체육대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총 10회째 진행되는 전교인 대상 체육대회는 그 시작과 행사의 형태는 조금씩 달라졌지만,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한 형제라는 모토로 성도 간 하나 됨의 기쁨을 누리기 위한 행사였습니다.
한마음 한가족 축제는 기본적으로 청, 백으로 팀을 나눠 성도 간 협동심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체

육대회와 다양한 볼거리 (다양한 찬조팀의 공연, 교회학교 놀이 행사), 그리고 교구별 점심 식사와 함께 푸짐한 경품 추첨이 어우러진 그야 말로 전국 잔치입니다.
다시금 시작되는 전교인 대상 축제인 만큼, 어린이부터 어른신 그리고 호산나 대학과 사랑부, 디아스포라, 예바다부까지 서울 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가하셔서, 이번 축제를 통해 하나님의 참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며, 더불어, 가족들간의 화목을 굳게 다지며, 참 교회의 모습과 올바른 성도의 자세를 함양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번 축제는 서울교회의 미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인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기획부터 축제 진행의 모든 단계를 책임지고 준비 중입니다. 학업과 생업에 바쁜 청년들이지만, 교회의 화합과 하

나님이 기뻐하실 전국 잔치를 직접 준비할 수 있다는 벅찬 기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미흡한 점도 있겠지만,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성원 그리고 적극적인 도움과 참여로 이 축제가 잘 준비되고 진행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 10회 한마음 한가족 축제는 5월 6일 화요일 잠실학생실내체육관에서 9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화목한 가정답게, 열린 교회답게 성도간에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서울교회 성도됨을 감사하게 될 것이고 웃고 격려하므로 서울교회는 독수리 힘찬 날갯짓 하며 도약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모아서 마음껏 즐겨봅시다!
은혜로운 자리가 되도록 만들어 봅시다!
바로 5월6일(화요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2014 방글라데시 여름 단기선교 일정 확정

- 2014. 8. 9(토) ~ 8. 16(토) 7박 8일 -

서울교회가 방글라데시로 파송하는 단기선교 일정은 8.9(토)-8.16(토) 7박8일이다. 직장문제로 참가하기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 15일 광복절(공휴일)을 포함하여 일정을 확장함으로써 평일 4일간만 휴가를 내면 이번 단기선교에 동참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 단기선교에는 의료 선교팀이 모든 일정을 함께 동행하며, 서울교회가 설립한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 소재 다카장로교회 및 인근지역에서 의료사역과 이.미용사역이 펼쳐질 예정이다. 또한 서울교회가

파송한 조남혜 선교사가 사역하는 아사호텔(교아원)에서 여름성경학교 사역도 진행된다. 현재 단기선교에 참가할 단원을 4월 27일까지 모집중에 있으며, 5월부터 선교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참가희망자는 매주 월요일 저녁 7시부터 602호에서 개강중인 단기선교대학을 수강하기 바라며, 참가신청과 구체적인 사항은 지도 황 광 목사(010-3351-7634), 단장 김형상 집사(010-5219-8823)에게 문의하기 바란다.

찬양대원 세미나 및 연합기도회 4월 8일(화) 오후 7시 30분 / 101호

찬양대원 세미나가 '찬양과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4월8일(화) 저녁 7시30분 부터 웨스트민스터홀에서 열린다. 이날 강사는 민인기 교수(수원 시립합창단 지휘자,무학교회)가 선다.

모든 찬양대원 및 그레이스 핸드벨, 아멘관현악단 대원 모두 필히 참석하기 바란다.

■ 특별찬양 ■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영어예배를 담당하는 예루살렘찬양대(대장:신현일 집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심상희 권사의 지휘로 '시편 103편', 'On that Great, Getting' up Day (그 이른 아침에)', 'Go, carry the Burden to Jesus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등 내곡을 이승민 집사의 피아노 반주와 김정희 선생(베들레헨찬양대)의 피아프오르간 연주로 찬양하며 박동수 성도가 바이올린 협연을 한다.

동 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11일(금) 장로교한교단다체제 한장총독별위원회를 소집한다.

■ 12교구 이갑진 장로는 4월 5일(토) TV조선 황금편차프로그램에 서복도서관련 대담

■ 개업: 8교구 김흥기 성도(김광욱 집사 서영희 권사 장남) 서울좋은치과,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30-3 가산빌딩 2층 Tel.032)349-7528

■ 주간식당봉사: 빌립선교회 도르기전도회(4.6)

인드레선교회 루디아전도회(4.13)

■ 금주의 식사: 교회제공

2014년 2분기 추가 섬김위원 명단

· 예배위원회

현금1부:공민호 은기장 정순임 정윤희 / 현금2부:유복진 정영애 / 현금3부:김혜주 박진주

· 찬양위원회

가브리엘:강재훈 이장기 정동식 / 할렙루아:김영규1 박수련 이종영 최재식 / 임마누엘:김기연 김수지 김양희2 양세정 연구빈 우령찬 이민주3 이영자1 이주희2 정하영1 표정희 홍정란1 / 베들레헨:강민석1 김금준 김광태 김주만 김형상 김진호6 염동언 윤명구 정인주 최광혁 / 예루살렘:양옥희 / 호산나:김순덕 최재현 / 시온:서점옥 이경희3 / 은빛찬양대:부대장 이재순 / 그레이스핸드벨피아: 박지혜4 / 아멘관현악단:김승규1 김형주1 박하람 여건수 임정빈 지인석 최광희 최명아

· 교육위원회

유아부:백송희 신은미 이지은10 이진영 이현수 정기자 지강희 / 유치부:김택정 신도빈 이소윤 허소정 황신혜 / 유년부:노애리 박미숙2 우하은 임채연 조성경 최의진 황신혜 / 초등부:박경진 송경민2 전미경 정미경3 / 꿈나무영아성품스쿨:김세준 박선주 박선영9 이대영1 전시경 권수정 / 유초등연합2부:인미나 진현미 / 어린이수요예배:부감 이경실 / 중등부:강혜주 연구빈 최진경 / 고등부:임주현 / 청년1부:부감 미영아 / 청년2부:권영월 / 장년부:윤형준 / 소요리문답부:김상태 박희서 백정순 신성균 전영돈 전원순 조민자 최명남 / 신앙강좌부:김정숙8 김중철 박용성 백운선 신성균 신중균 이태원 흥현미

· 새가족위원회

새가족부:김영애 장호림 / 세례교육부:김애자

· 교구위원회

1-7 다락방장:서영옥 부다락방장:노승원1 / 1-9 부다락방장:양미경 / 1-16부다락방장:이종혜 / 1-23다락방장:윤영희2 부다락방장:노은주 / 2-5부다락방장:안현남 / 3-2다락방장:오세복 부다락방장:김종철1 / 3-13다락방장:박정애 / 3-20다락방장:황영희 부다락방장:진교숙 / 4-11다락방장:양옥희 부다락방장:곽태수 / 5-7부다락방장:이영주 / 5-8다락방장:심화숙 부다락방장:정수경 / 5-11다락방장:이양숙 부다락방장:김영희 / 7-3부다락방장:박혜선1 / 10-3부다락방장:홍재식 / 13-1부다락방장:

신호용 / 13-6부다락방장:김수양1 / 13-11부다락방장:김연옥3 성순란 / 13-14부다락방장:강정화 / 13-15부다락방장:주완숙 / 13-24부다락방장:김말심 / 13-25부다락방장:한상진 / 13-28부다락방장:박희현 / 14-5다락방장:정기자 / 15-8다락방장:신혜진1 부다락방장:최영인 / 16-2다락방장:박상훈 / 16-6부다락방장:차예경 / 16-7다락방장:최옥조 / 16-14부다락방장:김정희10 / 16-15다락방장:이윤자1

· 전도위원회

희락팀:김은희1 최형숙 / 화평팀:이선희5 / 자비팀:배경옥 정호진2 / 수요노방전도팀:김미선2 유운순 황재연 / 문서전도팀:김선혜 김인실 박형숙 / 화요기도팀:권혜옥 백선희 성순란 신은영2 장난희 조희경2 / 목요기도팀:주정희 호창복

· 선교위원회

동아시아 권역선교사팀:이순열 / 동아시아 김모세선교사팀:유영숙 이길재 임미경 홍성혜 / 말라위 김용진선교사팀:노순례 황해자 / 방글라데시 박진영선교사팀:여현진 정정숙 / 캄보디아 이재윤선교사팀:윤숙지 이영애 이은미 / 미얀마선교사팀:김연옥 성순란 전지은 / 전호진선교사팀:탐정:진교숙 / 김말심 김순영 김은주 박분옥 백영란 백운선 송종순 윤종희 이경실 황영희 황현숙 / 인도 조범연선교사팀:김인숙 김현정 방승희 전정숙 / 우크라이나 홀남기선교사팀:김선혜 / 서아시아 전광현선교사팀:김선자 김연옥 박순복 성순란 양옥희 유문순 이재순 전지은 전희정 조명옥 최희희 최화옥 하영수 황재연 / 김중일선교사팀:김태희 이금란 / 북한선교팀:권희순 김남옥 / 아르헨티나 김인서선교사팀:정윤희 / 일본 허창범선교사팀:김말심 김순영 김은주 박분옥 백영란 백운선 송종순 윤종희 이경실 진교숙 황영희 / 기도예비팀장:김은희 노의정 한혜경

· 재정위원회

계수2부:김은희

· 관리위원회

차량관리부 1부:이인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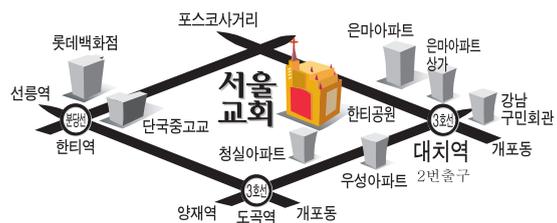
· 설교사역도교부

1팀:김선자 / 2팀:송민정 이상섭 정윤희 최혜순 / 3팀:구연복 김명숙 김명자 김옥순 박정자 유복진 유영숙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II, III, IV 층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 요 예 배	젊은이 예배	오전 1시 30분	본 당 II, III 층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